

교통사고,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요!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안전부절 못하게 되고 경찰이나 보험사에 연락하는 것 외에는 무얼 해야 할지 얼른 떠오르지 않는다. 하지만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구조조치다. 불의의 사고 발생 시 해야 할 사항을 순서대로 익혀서 피해를 최소화 해 보자.



01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즉시 정차하여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다. 특히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는 뒤따르는 차량과의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등으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하며,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02

모든 교통사고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운행 중이던 차량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교통사고를 처리하면 된다. 응급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19에 먼저 신고를 하고, 그 외의 인적피해사고는 경찰에 신고한다.

다친 사람이 없다면 **연락처만 교환하면 된다?**



경미한 사고로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고 판단되더라도 사고 현장을 떠나면 도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회사 직원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현장을 떠났거나 피해자를 찾기 힘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해 놓아야 사고 후 도주로 판단되지 않는다.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확보, 사고현장 촬영 등의 증거 확보를 해놓는 것도 필요하다.